타지마할 - 불멸의 사랑을 기린 영원한 걸작

- 기하학적 대칭미의 '백미', 新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 -

인도의 타지마할은 2007년 7월 7일 '新세계 7대 불가사의'로 지정되었고, 내셔널지오그래픽이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선정한 세계적인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은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남쪽 야무나(Yamuna)강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며, 1632년 건축을 시작하여 1653년에 완공되었다. 무굴제국 건축 양식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묘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 타지마할은 무굴제국 최고의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의 하나로 손꼽히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다.

왕비 뭄타즈 마할의 묘궁

무굴제국의 최전성기에 있던 제5대 황제 샤자한(Sgah Janhan, 재위 1628 1658)의 왕비인 뭄타즈 마할(Mumtax Mahal, '궁정의 선택받은 자'라는 의미)은 1631년 6월 14번째 아이를 출산하다 세상을 떠났다. 급작스러운 왕비의 죽음으로 황제는 큰 슬픔에 빠졌고, 사랑했던 왕비에 대한 기억을 영원히 기리기 위하여 1632년부터 묘 건설을 시작하였다.

공사가 시작된 1632년 1월에 왕비의 시신은 아그라로 옮겨져 묘궁 부근에 임시로 매장되었고, 이 위에 큐폴라(cupola, 작은 돔)를 씌웠다. 이 묘궁이 완성되는 데는 22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렸고, 완공 후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미래의 걸작품'이 되었다.

무굴제국 건축 양식의 표본

타지마할은 무굴제국의 표준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무굴의 건축 양식은 증축 혹은 개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의 하나로, 타지마할도 하나의 통일체로 설계되었다. 이 밖에도 중앙 축을 중심으로 한 좌우 동형의 건물 배치는 물론 자재와 색채에서 아주 세밀한 장식에 이르

묘궁과서쪽의모스크(左), 그리고동쪽의자와브전경(右).

기까지 위계질서를 부여하는 등 무굴 건축 양식을잘표현하고있다.

기하학에기초를둔대칭의미잘드러내

타지마할은장방형담장으로둘러싸여있으며, 전정과중정, 그리고묘궁의순서로배치되어 있다. 보통의묘궁이 중정의 중심에 세워지는것이일반적이라면타지마할의경우는 정원의 건너편 안쪽에 묘궁을 배치하는특징을보인다.

한편, 남쪽에있는붉은사암으로된거대한 정문의아치를통과하면 넓은 마당에수로를둔 전형적인무굴양식의정원과 분수가 나오는데그 곳은 수로와공원길에 의해 4등분되어있고, 정원앞에는완벽한대칭의미를 드러내는 묘궁이 위치해 있다. 중앙에는묘궁이, 묘궁의동서양쪽에는완전대칭을 이루는 2개의 건물이 붙어 있다. 서쪽에 있는 것은 모스크이며 동쪽의 것은 미학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운 ‘ 자와브(영빈관) ’이다. 이두건물은붉은사암으로지어져백색 대리석으로 지어진 묘궁과 표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타지마할의 세부 시설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7m 높이의대리석 대좌위에 건설된 묘궁은팔각형의 평면 위에양파모양의 이중돔을올린형태를갖추고있는데, 이중 앙의돔은높이가 44m에이른다. 이러한중앙의돔주위에는4개의첨탑을배치하여거대한돔을둘러쌓도록하고있다. 입면을살펴보면 중앙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으로통일성을갖는구성을갖추고있다.

내부에는 중앙을 에워싸는 4개의 묘실이 배치되어있고, 중앙묘실에황제부부의기념비와 무덤이 배치되어 있다. 무덤은아름다운돌로장식되고, 보석이박힌대리석칸막이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관에는 ‘ 신은 영원하시며, 신은 완전하시도다 ’라는 비명이새겨져있다. 그들의사랑은신처럼영원하며 저승에서 다시 재결합하는 것을 뜻하는말이라고한다.

다음으로, 정문과정원, 수로에대해살펴보면남쪽에정문, 중앙에수로를두고묘궁과마주보는배치로되어있다. 이정문은우리나라 사찰의 일주문과같은의미로 문 바깥의속세와안쪽에 있는 영혼의 낙원을 구분하는 의미를 가진다. 정문을 지나면 안쪽 마당에 전형적인 무굴 양식의 정원이 있는데, 수로와공원길로4등분으로분할되어있고, 이길은다시수로로4분할되어있다. 이러한 형태는 정사각형을 단위로 한 기하학에 기초를두어 완벽한대칭을이루도록 하는배치로, 이슬람의낙원사상을담고있다.

동서양의 전문 기술자들 참여

타지마할 설계자에 대해서는 이탈리아의 보석 기술자인 제로니모 베로네오(Geronimo Veroneo) 또는프랑스의 금세공업자인 오스틴 보르독스(Austin De Bordeaux)라는설과함께숱한논쟁이이어져왔다.

1930년대에 발견된 타지마할 공사에 관한 필사본 문서에 의하면 타지마할의 건축에는이탈리아, 이란, 프랑스등지에서동원된모자이크수공업자, 대리석기술자, 서예가 등 외국의 기술자들과 무굴제국의 전문 기술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타지마할 건설에 동원된 인력은 앞에서 언급된기술자들을포함하여2만여명에이르렀다고전해지고있어, 그규모가어느정도였는지가늠할수있다.

고무와쇠를채운나무통으로토대다져

타지마할은많은어려움속에서건설되었는데건설과정중직면한가장큰어려움은 단을 쌓을 토대를 확보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이작업은강둑의모래지반에돔을얹은 68m 높이의묘궁과각종탑들을지탱할 토

대를 다지는 것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료에 의하면 이를 위해 고무와 쇠를 채운 나무통으로 토대를 다졌다고 한다. 한편, 묘궁 중앙 돔은 벽돌로 쌓고 그 위에 흰 대리석을 씌워 시공하였다. 여기서 대리석을 돔의 상층부까지 옮기기 위해서 기중기가 이용되었는데, 이를 위해 두 기둥 사이에 보를 걸치고 보 중앙에 도르래를 설치하였으며, 밧줄 끝에 대리석을 매단 후 인력으로 당겨 양중하였다.

한편, 부속 건물들은 모두 벽돌로 시공하고 붉은 사암으로 치장하였으며, 돔과 같은 특수한 구조물은 흰 대리석을 씌웠다. 이렇게 흰 대리석과 붉은 사암을 사용하여 색채의 이중적 위계를 표현한 것은 무굴 제국 건축의 일반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처에서 재료 조달, 돌 상감 법 사용

사용된 건축 재료들은 다양한 건설 인력 못지않게 세계 각처에서 공수되었다. 우선 타지마할에서 사용된 대리석은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라자스탄의 마크라나의 대리석 광산에서, 붉은 사암은 현지 석산에서 조달하였다. 효율적인 운반을 위하여 남부 석산에서 아그라까지 지축도(ramp)를 건설하고, 1,000여 마리 이상의 많은 코끼리와 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하였다. 묘의 내부를 장식하기 위한 보석들 역시 세계 각처에서 들여왔다. 중앙아시아의 투르키스탄에서는 연옥을, 티베트에서는 수정을 공수하였다. 또한, 미얀마로부터는 터키옥을, 이집트에서는 진주, 사파이어 등을 조달하였다.

한편, 묘궁에 사용된 돌 장식 기법은 외관의 경우, 백대리석 위에 붉은 사암으로 상감(象嵌)하여 이슬람의 기하학적 벽면을 만들었으며, 중앙의 묘실에 있는 뭄타즈 마할과 샤 자한의 비석 주변에 둘러진 칸막이에는 보석을 넣어 정교하게 가공한 꽃과 식물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이를 위해 모자이크의 일종인 '피에트라두라'라는 돌 상감 기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피렌체의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기법으로 대리석에 꽃들의 문양을 판 뒤 그 홈에 각각 다른 색의 돌이나 준보석을 박아 넣은 것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묘실(下)과 피에트라두리 기법의 돌 장식(上).

350년 존속,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

타지마할 전체 단지는 1643년에 완성되었으나, 장식 작업은 그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완공까지 소요된 비용은 약 400만 500만 루피로 추정되고 있는데, 무굴 건설 기술자들의 위계에서 상위에 속하는 석공들의 한 달 임금이 9 20루피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타지마할이 약 350년 동안 존속하고는 있지만, 독특한 외관과 대리석 마감들은 아그라시에 밀집해 있는 공장들이 내뿜는 매연과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으로 오염되고, 산성비로 풍화되었다. 이에 인도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UNESCO에서도 나서서 이를 보수하고 영구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세계의 문화유산이라고 칭송받는 타지마할은 묘궁의 중앙 돔과 이웃한 첨탑들과의 절묘한 구성, 어떤 방향에서 보아도 균형 잡힌 아름다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환상적인 자태, 그리고 곳곳에 아름다운 장식들을 통하여 왜 이 건축물이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지정되었는지 웅변해 주고 있다. 또한, 유사 이래 인도 반도 전역을 휩쓸었고, 국지적으로는 여전히 진행형인 힌두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분쟁에서도 이 건축물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종교를 초월한 숭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윤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
yjkim@cerik.re.kr